



Grecale

꾸미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 우아함이 흐른다



그레칼레 GT 디지털시계



그레칼레 GT 센터콘솔



그레칼레 GT 외관 에어벤트

강력한 지중해 복동풍 '그레칼레' 럭셔리와 스포티의 완벽한 조합 SUV지만 'MC20' 정체성 공유 동급 최고 실내공간·성능·안정성 소너스파베르 오디오시스템 적용

굳이 꾸미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제작하는 시트커버, 전설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반하게 만든 배기음.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삼지창 모양의 엠블럼.

이탈리아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성으로 사랑을 받아온 109년 역사의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그레칼레' (Grecale)는 '강력한 지중해의 복동풍'이라는 뜻을 지녔다.

그레칼레는 마세라티의 슈퍼 스포츠카 'MC20'의 DNA를 계승,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시각적으로 무게 중심이 낮아 보여 스포티한 쿠페 실루엣이 한층 돋보인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상징적인 모델=그레칼레는 브랜드의 미래지향적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차량의 아름다움과 혁신성을 최대한으로 구현한 모델로 꼽힌다.

이탈리아 장인정신이 녹아 있는 디자인과 특유의 럭셔리한 감성을 바탕으로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우아한 디자인과 스포티함의 완벽한 조화로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그레칼레는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휠베이스(2901mm)는 르반데보다 짧지만 경쟁모델인 포르쉐의 카에엔보다는 길어 상대적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 낮은 전고로 무게 중심이 낮아 보여 스포티한 쿠페 실루엣이 부각된다.

SUV이지만 성능 면에서는 슈퍼 스포츠카로 분류되는 MC20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MC20과 같은 내튜노 엔진이 장착돼 530마력의 힘을

내는 '트로페오'를 중심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GT'와 '모데나'까지 3트림으로 출시됐다. 트로페오 모델의 최고속도는 시속 285km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인 제로백은 3.8초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동급 최고의 실내공간과 성능, 안전성이 돋보인다. 전장(4860mm)x전폭(1980mm)x전고(1660mm) 등 프리미엄 세단에서 SUV로 전향을 원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체 크기는 중급급이지만 실내공간은 동급 모델 대비 최강이라는 평을 얻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마세라티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여겨졌던 내부 편의사양이 디지털화로 변화한 덕이다. 중앙 패널에서 버튼이 사라지고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8.8인치 콕핏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해져 팔걸이 공간도 넓어졌다.

트렁크의 적재공간을 보면 플로어 아래 추가 적재함을 가지고 있으며, 트렁크에 있는 버튼으로 2열을 폴딩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트렁크의 용량은 535-570 L이다.

◇브랜드 역사상 가장 혁신·미래지향적=마세라티 디자인의 핵심은 럭셔리함과 레이싱 헤리티지다. 현재까지 마세라티의 모든 모델들은 해당 테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레칼레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깔끔하고 모던하면서 감성적인 디자인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첨단 기술을 탑재했다.

실내에는 클래식 클러스터와 중앙의 새로운 12.3인치 패널, 추가 제어 기능이 포함된 8.8인치 콕핏 디스플레이, 새로운 디지털시계 등, 최소 4개의 화면이 장착돼 있다. 중앙 패널에서 버튼이 사라지면

서 넓은 암레스트, 더블 버터플라이 도어가 달린 대형 수납 공간, 휴대전화 충전 패드를 배치할 공간이 확보됐다.

그레칼레는 마세라티 역사상 최초로 디지털 시계가 장착됐고, 한층 진화된 인터페이스가 자리 잡았다. 시간뿐 아니라 음성 명령을 받을 때마다 응답 신호도 표시할 수 있다.

마세라티는 '미니멀리즘' 철학을 채택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깔끔하게 꾸미면서도 대부분을 손가락 하나의 터치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요소로 소 탑재했다.

◇기대를 한 몸...소너스파베르 사운드=마세라티는 기존 모델에는 하만카톤, 그리고 바위스&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그레칼레에는 소너스파베르의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마세라티 수석 디자이너 쿠엔틴 아모레는 "두 브랜드 모두 '이탈리아'라는 공통의 디자인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퍼시픽(APAC) 대표인 기무라 다카유키는 "이탈리아의 감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탈리아의 사운드 전문 업체인 소너스파베르가 설계 및 제작한 이 사운드 시스템은 두 가지 수준의 사용자 정의를 제공한다.

그 중 하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특별한 사운드의 완전함과 심도를 위해 최대 1285W의 출력으로 21개의 스피커와 3D 사운드를 제공한다.

전원 소재와 독점적인 스피커 디자인은 실내 공간에 탁월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 중음역대 스피커 사이의 거리 및 시간 조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특별한 '소너스파베르의 보이스(VoS)' 톤

을 만들어냈다고 마세라티는 설명했다.

서브우퍼 기술은 더 이상 트렁크에 갇혀 있지 않고 개방된 공간에 배치돼 차량 내 공간과 결합, 성능과 공간을 최적화해준다.

진정한 소너스파베르의 자연스러운 사운드 경험은 45W 트위터 7개, 60W 중음역대 스피커 3개, 45W 서라운드 중음역대 스피커 2개, 100W 프론트 우퍼 2개, 60W 리어우퍼 2대, 45W 중음역대 스피커 4개, 200W 서브우퍼 1개로 총 21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어(총출력 1285W) 몰입감이 우수해 탁월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레칼레는 GT, 모데나,트로페오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됐으며, 고성능 트림인 '트로페오'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고객인도가 시작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진정한 레이싱 야수같은 성능 자랑

마세라티의 730마력의 레이싱카 'XCMtrema'가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마세라티는 최근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에서 열린 세계적 자동차 축제 'Monterey Car Week 2023'에서 새로운 트랙 모델 'MCXtrema'를 공개했다.

이 행사는 매년 여름 전 세계의 자동차 애호가들이 몬테레이 반도에 모여 뛰어난 자동차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축하하는 독특한 무대다.

'MCXtrema'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마세라티의 한정판 슈퍼 스포츠카로,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았다.

진정한 레이싱 야수를 풀어낸다는 콘셉트로, 이전과 차원이 다른 파괴적인 분위기를 차아낸다.

마세라티의 디자인팀 '센터로 스틸레'(Centro Stile)는 과학을 통해 예술을 창조한다는 특별한 태도와 완벽함을 목표로 'MCXtrema'를 탄생시켰다. 그 결과 아름다운 디자인과 공기역학적 혁신적으로 혼합됐고, 트랙에서 보장된 최대 접지력, 스포티한 정신 및 뛰어난 성능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냈다.

전면 보닛 부분에는 트라이던트의 모양을 구

현, 전면과 측면은 차량의 공기역학적 흐름을 개선하도록 설계됐다. 후면 상단에는 차량의 냉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용 디자인의 메쉬가 생성됐다. 하단에는 대형 공기역학적 추출기가 중앙에 위치한다.

트랙 전용 스포츠카는 가벼운 무게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내부 인테리어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제거했다. 레이싱카에 맞게 디자인되면서 1인승 조종석을 떠올리게 한다.

'MCXtrema'의 엔진은 MC20의 사양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된 성능을 자랑하며 트랙 주행에 최적화했다. 최신 V6 내튜노 엔진에 새로운 터보차저를 추가해 기존 엔진의 한계를 뛰어 넘었고 730hp의 피크 출력과 730Nm의 최대 토크를 달성했다. 최대 출력은 7500rpm에서 도달, 최대 토크는 3000rpm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약 1.8kg/hp라는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을 보인다.

'MCXtrema'는 전 세계 오직 62대만 한정 생산된다. 순수주의 수집가와 뛰어난 성능 및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마세라티 충성 고객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730마력 레이싱카의 위용 전 세계 오직 62대 한정판

XCMtrema

